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의 활용

이남규 / 상진기업 상무이사

1. 합성수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는 수명이 영구적이어서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토양 속에서도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아 있어 주변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합성수지 용기는 분리수거만 제대로 한다면 100% 재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화학물질 연구 개발을 통해 자원 낭비의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타 재질용기와 비교시 장·단점

타 재질 용기와 비교하면 합성수지 용기가 가볍고,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며 보온이 잘 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의 제작이 쉬우며 제조단가가 타 재질에 비해 저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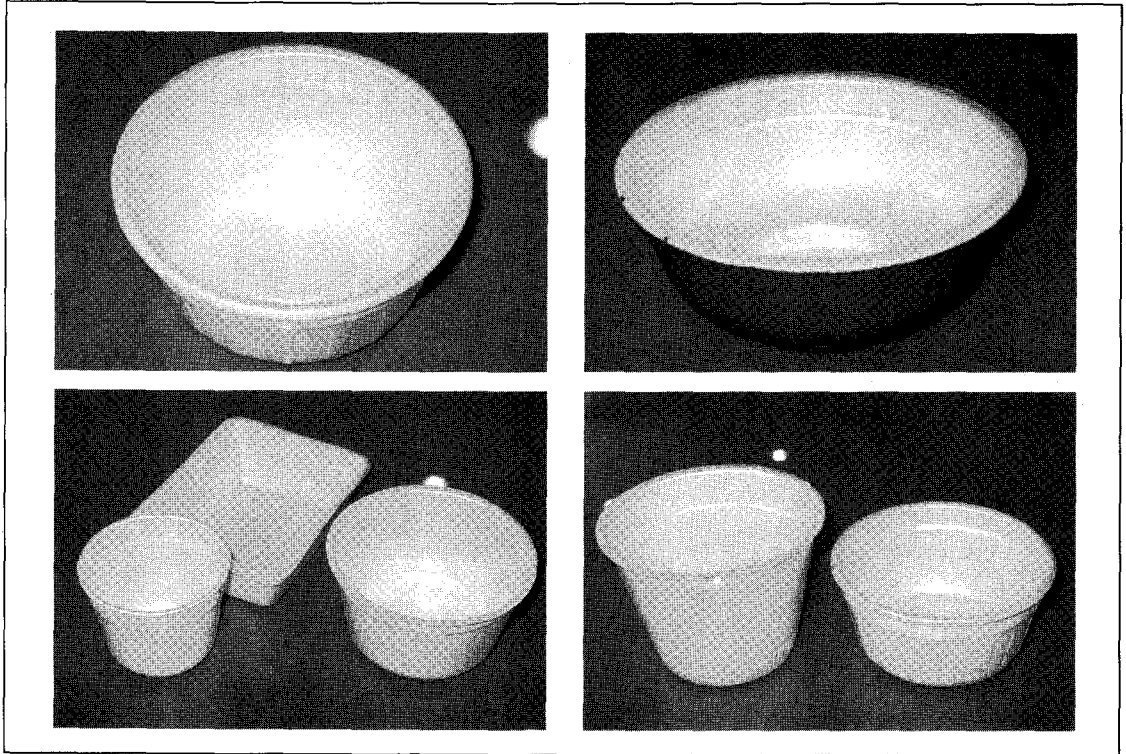
그러나 가연성이 높아 화재시 가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명이 영구적이어서 폐기시 파괴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

3. 종이로의 전환에 따른 입장

컵라면 용기가 종이로 전환된다고 해도 종이 용기 역시 안쪽 표면에 비닐을 씌우므로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종이 용기의 사용이 환경보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합성수지 용기에 비해 종이 용기의 제조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시 추가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종이 용기로의 급격한 변화는 당사와 같이 중소 합성수지 용기 제조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중소 합성수지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



▲ 삼진이 생산하는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하여 국가 경제 활동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 보호라는 미명 아래 급하게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우리 나라 제조업을 살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대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의 제작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가 시책 연구로 합성수지 용기를 분해 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연구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및 환경보호에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